

## 울산보호관찰소

○ 매체 : 로이슈(2024. 5. 27.)

○ 제목 : 울산보호관찰소, 3개기관 연계 저소득계층 및 저장 강박세대 주거환경 개선

### 울산보호관찰소, 3개기관 연계 저소득계층 및 저장 강박세대 주거환경 개선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울산 야음동과 동구 대송동 소재 저소득계층과 저장 강박세대 2가구의 노후화된 집기류 정리와 집안 가득 폐기물 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4명이 주거환경 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울산보호관찰소와 울산 남구청(구청장 서동욱), 동구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오정임), 남구 대현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명재) 3개 기관이 연계해 집안 가득한 쓰레기로 기온상승에 따른 악취가 이웃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1개 가구는 입구부터 폐지와 쓰레기가 가득해 집안 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가구에 거주하는 40대 C씨는 라면과 술로만 생활을 이어오다 이달 초 남구청 통합사례 관리팀에 아사 직전 발견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 구청에서 마련해준 임시거처에서 건강을 회복하며, 깨끗하게 정리된 집으로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통합사례 관리 담당자 L 주무관은 “울산보호관찰소의 도움으로 폐기물을 쌓아두고 약조건 속에서 생활하는 소외계층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 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울산 대송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사는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 코너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형준 주무관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

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의 환경 복지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여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지역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